



피아니스트 손열음.

서귀포예술의전당 제공

손열음이 해석하는 그 곡들

서귀포예당 기획 공연
내달 17일 대극장 무대
피아니스트 곡 재조명

맑고 투명한 음색과 섬세한 감성, 치밀한 작품 해석과 압도적인 기교를 두루 갖춘 연주자, 피아니스트 손열음에게 따르는 평이다. 손열음은 2009년 미국 반 클라이번 국제피아노콩쿠르 은메달에 이어 2011년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피아노 부문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일찌감치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가 서귀포에서 독주 무대를 갖는다. 오는 9월 17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기획 공연인 '피아니스트 손열음 리사이틀'은 손열음의 폭넓은 음악적 시선과 창의적인 프로그램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거장'으로 불리는 피아니스트들이 작곡한 음악을 중심으로 프

그램을 짰다.

폴란드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그나치 얀 파데레프스키의 '콘서트를 위한 유모레스크 작품 14중 1권'을 시작으로 완다 란도프스카의 '도깨비 불', 타티아나 니콜라예바의 '엘레지 작품 19', 슈라 체르카스키의 '비통한 전주곡', 로베르트 카사드쉬의 '토카타', 알렉시스 바이젠베르크의 '알 봄블라트', 발터 기제킹의 '3개의 즉흥 춤', 프리드리히 굴다의 '플레이 피아노 플레이' 중 8·9·10번, 얼 와일드의 '백설공주의 회상' 등 10여 곡이 잇따른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창작자로서 피아니스트들의 면모를 조명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시대와 개성을 지닌 작품들이 손열음을 통해 새롭게 펼쳐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람료는 R석 5만원, A석 4만원, B석 2만원. 예매 개시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귀포E티켓.

진선희기자

주말, 여기 제25회 서귀포 천지연 여름 음악 축제

서귀포 여름밤, 음악으로 물든다

천지연폭포 야외 공연장
21~22일 이틀간 음악제
금관5중주에서 합창까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천지연 난대림'을 품은 서귀포 도심의 천지연폭포. 이곳에 전복 껍데기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야외 공연장에서 여름밤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공연이 열린다. 2001년 첫 행사 이래 올해로 25회째인 '서귀포 천지연 여름 음악 축제'다.

천지연폭포는 서귀포를 대표하는 명소로 꼽힌다. 최근에는 야간 운영(밤 10시까지)에 맞춰 조명 연출을 새롭게 바꾸는 등 볼거리가 한층 풍성해졌다.

한국음악협회 서귀포지부가 주최·주관하는 천지연 여름 음악 축제는 거기에 낭만의 선율을 엮었다. '서귀포의 여름밤, 음악에 물들다'란 부제를 달고 이달 21~22일 이틀 동안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나들이에 나선 시민과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꾸민다.

첫날에는 어린이 태권도 시범



지난해 열린 서귀포 천지연 여름 음악 축제. 전복 껍데기 모양의 야외 공연장이 눈길을 끈다. 서귀포시 제공

'5세대의 반란'을 시작으로 대구와 제주 연주자들이 참여한 달구벌 한라 금관5중주, 소프라노 오승희, 서귀포중학교 윈드하모닉스, 팀 셀마 클라리넷 5중주, 노크(Knock) 등이 무대에 오른다. 둘째 날에는 아르카나 스트링스, 블리스(BLISS) 앙상블, 유포니움 프로젝트 인 코리아, 벨라에린이합창단, 서귀포폴루트앙상블, 그루브몬스터의 공연이 잇따른다.

출연진은 전문 연주자에서 음악

동아리까지 폭넓다. 금관·현악 앙상블에서 성악·합창까지 다채로운 구성으로 귀에 익은 클래식과 가곡, 영화음악, 제주 소재 노래 등을 들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음악 축제는 제주에서 펼쳐지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념 공연의 의미를 더했다.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호흡하며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한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 바람과 함께 쌓아 올린
15년 예술적 성찰의 기록들
전업미술가협회 제주지회전

"지나온 15년의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제주의 바람과 자연 속에 켜켜이 쌓아 올린 예술적 성찰의 기록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제주지회장을 맡고 있는 한용국 작가는 15번째 정기전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했다.

제15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제주지회전이 '열다섯 번의 울림'이란 주제로 펼쳐진다. 이달 22일부터 27일까지 한라일보 1층 '이름 갤러리 한라일보점'.

이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급변하는 시대와 어려운 여건 속에



한용국의 '삶의 자리-보름리'.

전업미술가협회 제주지회 제공

서도 붓을 놓지 않고 있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 화면 위에 풀어낸 이야기들은 단순한 시각적 아름다움을 넘어 삶과 세상을 이어주는 희망의 메시지다. 출품 작가는 33명으로 제주 미술의 다양성과 깊이를 보여준다.

이 단체는 창작에만 전념하는 전업 미술가들로 구성됐다. 2012년 창립전 이래 매년 정기전을 열고 있다. 서울, 대구, 광주, 터키 이스탄불 등 국내외 교류전으로 제주 미술의 오늘을 알리는 활동도 꾸준히 벌여 왔다.

진선희기자

문화가 쏙지

▷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제10회 제주국악제=제주도와 평안도의 일노래가 만난다. 남과 북으로 갈린 땅에 있는 제주도와 평안도이지만 노래로 서로를 격려하며 공동체를 유지해 온 전통문화에 주목해 두 지역에서 불린 노동요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섬과 들을 잇다'란 부제 아래 국악협회 제주도지회, 사단법인 향토계놀이보존회가 공연에 나선다. 김향옥 제주도 무형유산 '제주농요' 보유자, 유지숙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서울시 무형유산 '삼현육각' 최경만 보유자가 특별 출연한다. 식전 행사로 제주 김영철 심방이 재구성한 '한가락 연발'을 선보인다. 이달 22일 오후 7시 비인 공연장.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올레시네마 인 제주 시즌 2(우와예)'=제주에서 열리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기념 공연. 9월 12일 오후 5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영화음악과 성악,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지는 종합 음악회로 꾸민다. 배우 신하균을 비롯해 강정아 예술감독, 최영선 지휘자, 이지수 음악감독, 김형석 연출가가 참여한다. 연주는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무료. 도 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 참고.

▷고길천의 강정 기록화 전시 '붉은 구름비'=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에 기증했던 2022년 이아 갤러리 전시 작품을 다시 꺼냈다. 제주 생명평화대행진 기간(이달 27~30일)에 맞춰 펼치는 전시. 24일부터 30일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 오프닝은 첫날 오후 2시.

▷이래숙 개인전 '상자 속의 정원'=제주 장애인예술 창작 지원 단체(사)누구나의 '2026 문턱없는 폴라보 vol.2' 네 번째 전시. 만력식물을 그린 작품을 중심으로 작가의 내면에 자리한 정원을 보여준다. 이달 26일까지 갤러리 키위세스테이션.

▷제주서예문화연구원 여섯 번째 회원전='섬과 산, 정신'을 주제로 비회원 포함 32명이 출품했다. 한글과 한문 서예, 문인화, 캘리, 민화, 한국화, 서양화 등 50점이 넘는다. 이달 23일까지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

제주의 맛, 그대로.
손끝의 정성, 그대로

제주의 바다와 들에서 얻은 재료,
그리고 제주웰링의 정성 어린 손맛.
몸이 편하고 마음이 쉬어가는 한 끼,
그게 바로 제주웰링입니다.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 725-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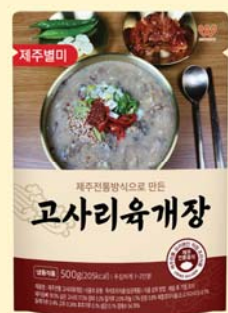
깊고 맑은 제주의 맛이 스며드는 한 끼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습니다.

신한에코 | 제주 전통방식으로 직접 조리한 식품

따뜻하게 데워 간편하게 집밥의 맛을 느껴보세요



제주묵국



고사리 육개장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성계전복미역국



제주갈치순살비빔장



전북순살비빔장



소라순살비빔장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기존 식당 메뉴에 추가를 원하시는 식당 사장님
행사, 도시락, 단체급식 등에 추천드립니다.